“건강한 노후 만들어요”…무안군 맞춤형 건강특화사업 호응

건강지킴이 교실·전문강사 초청 교육
심뇌혈관질환 집중 예방·관리
‘관절 팔팔 노후OK! 한방교실’ 운영
감염병 없는 무안 만들기 총력
감시·방역체계 대대적 정비

군민이 건강한 무안 만들기를 위한 무안군의 맞춤형 건강특화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보건소가 진행하는 심뇌혈관질환 탈출 건강장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건강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혈관 튼튼 내 몸 탄탄 한방 클리닉’.

결핵퇴치를 위해 추진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찾아가는 결핵전수검진.

무안군이 군민의 건강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협력 건강특화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군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특화사업과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무안 만들기’ 차원의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건강지킴이 교실 등 보건소 중심 맞춤형 건강특화사업 ‘박차’=무안군은 농촌지역이 급속한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문제되는 심뇌혈관질환(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등)을 집중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심뇌혈관질환 탈출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10개 보건진료소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인지율을 높이고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참여대상자들의 체지방 분석과 기초검사를 실시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 통합건강증진교육을 실시했다.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사업도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청소년과 중년, 노년기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에 대해 한의약적 맞춤형 접근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무안군의 노력이다.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각각 ‘소통PLUS, 건강UP 청소년 한방클래스’와 ‘혈관 튼튼 내 몸 탄탄 한방클리닉’을 운영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관절 팔팔 노후OK! 한방교실’은 골관절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것은 물론 관절통증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수면장애 등 2차 문제까지 다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읍·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8개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질병의 특성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진료와 예방접종 위주에서 질병 예방관리와 건강유지·증진 등으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질환과 목표를 설정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군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무안군은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한 무안 만들기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감염병 감시체계와 방역체계를 정비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감염병 담당 부서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과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보건 캠페인을 펼치고 손 씻기 생활화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결핵퇴치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군은 노인결핵환자의 조기발견과 완치, 결핵퇴치를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결핵전수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은 결핵균이 침이나 가래에 섞여 공기를 통해 감염되는 만성 감염병으로 기침과 식욕부진, 체중감소,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노인층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면역력이 약해 결핵균에 노출되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아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군은 지난해 일로읍과 몽탄면 노인 1036명의 검진을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삼향읍과 청계면, 현경면 노인 2500여 명의 검진을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삼향읍과 해제면 노인 1600여명을 내년에는 9개 읍·면 노인 1만1000명의 검진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무안군 관계자는 “현대질병의 특성과 달라진 사회 환경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기존의 진료와 예방접종 위주에서 질병 예방관리와 건강유지·증진으로 바뀌었다”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무안군보건소 직원이 집단급식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점검과 지도를 하고 있다. 〈무안군 보건소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대상
무안군, 식중독 예방 교육

무안군은 최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기관 단체 등 84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와 지속적인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식중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식재료 구입단계부터 조리와 제공 등 단계별 위생관리 요령과 식품안전관리 방법, 식재료 검수요령 등을 급식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 대량 환자 발생 때 신속한 대응과 확산방지가 가능하도록 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군민의 건강증진의 바탕이 되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군은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지도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생산·제조부터 유통소비의 전(全)단계에서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망 구축과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연중 운영, 영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식품위생 교육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과 식품안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칫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급식위생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철저한 감독과 관리 강화로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식중독 없는 건강한 무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